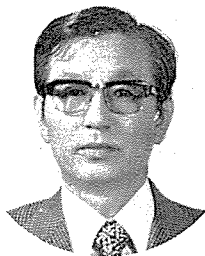


在外韓國人 『科協』을 지원하자.



趙炳夏
〈韓國科學技術院 교수〉

在美 韓國人科學者·技術者協會(在美科協으로 略稱)는 '71년 12월에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창립되었다. 창립회원수는 69명이었으나 현재는 3,000명을 돌파하고 있다고 한다. '82년 11월 현재 在美科協의 分科와 學位別分布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전공별, 학위별 회원구성(1982년 11월 현재)

분야	전공	박사	석사	학사	대학원생	대학생	계	%
이학	수학	45	26	14	6	2	93	12.6
	물리	121	57	30	10	2	220	29.9
	화학	198	77	45	20	12	352	47.8
	지질, 지구물리	14	13	1	2		30	4.0
	천문	6	6	1			13	1.7
	해양	3	2	1	3		9	1.2
	기타	5	7	5	1		18	2.4
	소계	392	188	97	42	16	735	
		(53.3%)	(25.5%)	(13.1%)	(5.7%)	(2.1%)		
	공학	화학, 석유화학	109	78	49	11	16	263
실용		3	10	4	1		18	1.2
민간		24	8	1	2		35	2.4
기타		86	57	36	11	18	208	14.5
조선		7	6	1	1		15	
항공		2	5	2	2		11	
우주		5	11	3	1	3	23	
산업		7	43	7	8	11	76	
의료		39	23	11	6		79	
금속		30	23	7	4		64	
광학		6	7	2	1		17	
도목		23	54	25	6	3	111	7.7
건축		3	30	22	4	4	63	
환경공학		6	11	1	1	1	20	
전기		88	110	54	24	25	301	21.1
의학	전과	3	16	6			25	
	범용	15	22	18	5	16	76	
	시스템	4	7	3		2	16	
	기타		4	1			5	
	소계	400	525	254	88	99	1426	
		(32.2%)	(36.8%)	(17.8%)	(6.1%)	(6.9%)		
	농수산	145	68	26	9	8	256	
	(56.6%)	(26.5%)	(10.1%)					
의약학	의학·약학·제약·간호	80	19	19	4	10	132	
	간호							
기타	기타	1		229			230	
총계		1,078	800	625	143	133	2,779	

자료 : KSEA Letters Vol. 11 No. 6 May-June

註 : 각 분야에 포함되는 전공분야는, ① 이학 : 수학·물리·화학·생물·지질·천문·기상·해양·통계 ② 공학 : 일반 공학분야·산업경제·산업공학 ③ 의약학 : 의학·약학·제약·간호 ④ 농수산 : 농학·수산·식품공학·영양학 ⑤ 기타 : 상기분야 외 및 기록 미비로 분과불명자.

'73년에는 在独科協이, '74년에는 在英科協이, '76년에는 在佛科協이 각각 발족되었고, 이들이 뭉쳐져서 在欧科協이 창립되어 현재 회원수는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즉, '83년에 在日科協이 81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하여 지난달 東京에서 科總 関会長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되었다. 이로써 汎世界的으로 在外科協이 형성되어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게 되었다.

在外科學者와 技術者들도 다른 해외동포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몸은 외국에 있다해도 마음은 항상 고국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 自手成家한 사람들이다. 居留國文化에 同化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母國의 文化를 異國땅에 매개하고 傳導하고 있다. 在外科協은 居留國內에서 그들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해 주는 동시에 母國과의 유대도 또한 강화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在外科協은 우리나라 僑民政策的인 시각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祖國統一 聖業의 海外勢力形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세계는 오늘날 一日生活圈化되어 가고, 韓國 사람이 가는 곳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南과北”의 대결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같은 대결을 성숙된 자세로서 극복하고 國運開拓의 실효를 즐기차게 추구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在外科協會員은 우리들과 끊을 수 없는 동포들이며, 그들은 한결 같이 잘사는 조국을 기원하고 있으며, 하나 같이 모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파하고 있다. 이제 在外科協의 조직이 전세계적으로 결성되었다. 이로써 과학하는 힘과 조국에 대한 사랑은 集積되어 하나의 힘으로 합력된 것이다. 우리도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도 우리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뭉쳐진 것이다. 10년간의 노력, 3천 5백여명의 在外科學者와 技術者가 조국을 위해 응집된 것이다.

현재의 在外科協의 會員은 주로 移民第一世代들이라 그들의 子女들에 대한 교육문제 특히 한글과 국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우리국가관을 옹계 심어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科學을 육성하고 技術을 진흥시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총동원해야 하는 역사적 시점에 처해있다. 在外科協은 先進科學·技術을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의 現地橋頭堡의 구실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인 것이다. 그리고 경쟁대신에 협동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案內役도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科學에는

아직 國境이 없는것 같으나, 技術에는 國境이 너무나 선명하게 부각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國際現實을 생각한다면, 在外科協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곧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들은 國籍國에 대한 충성심과 우리 조국에 대한 母國愛를 兼有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二重性에 유의하여 지나친 일은 피차가 삼가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세련된 행동은 무리없는 교류를 가능케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母國愛에 편중된 협력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따위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國內外的 韓國科學者·技術者의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 科學技術力의 제고와 國運開拓의 선도적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學術會議』는 '74년 7월 29일 서울에서 『科學·技術綜合 심포지움』이라는 이름으로 그 첫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10년이란 긴 세월이 걸쳐 매년 한번씩 개최해 왔었다. 처음에는 모국방문행사에다 學術은 양념으로 첨가된것과 같았으나, 근년에 와서는 방문적 성격은 芟除되고 學術의 專門性에 중점이 옮겨졌다. 새共和國의 출범으로, 모국방문과 專門學術을 대등하게 혼합한 대회는 3년마다 개최하고, 그사이 2년동안에는 專門學術위주의 會晤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大會운영방침이 바로잡혀졌다.

國內外韓國科學·技術者學術會議의 성격이 위와 같이 정립됨에 따라, '84년에는 在美, 在歐, 在日등을 총망라한 汎世界的인 첫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는 모국방문과 專門學術이 並立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 동안 國內科學技術者의 활동은 질적으로 高度化되어 갔고, 在外科協의 조직은 강화되어 그 활동은 활발하게 되었다. 즉 안팎에서 성장된 두 힘은 學術會議라는 만남의 광장에서 하나의 힘으로 뭉쳐지게 된다. 이 힘은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발전뿐만 아니라 조국의 先進化를 위해 거룩하게 이바지할 것이다.

뭉쳐지는 힘을 보고 맨손으로 박수만 치지 말자! 정성있는 “注油”로 힘차게 밀어주자! 在外科協은 國運開拓의 한 교두보이다!